

[사회]

의견 표출→사건·사고 폭로 댓글의 진화

인터넷 '댓글족'이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사고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머크레이커'(Muckraker·추문 폭로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족의 유형도 갖가지. '무한폭격기족'을 비롯해 '핫소문족'

스'의 주범이다. 정보 획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속파족'들이 가장 많이 활약하는 곳은 각종 포털사이트가 개설한 '지식검색 서비스'다. 하루 평균 약 400만명이 지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백과사전 267권의 분량에 해당하는 4천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무한폭격·핫소문족
애걸복걸·눈팅족
유형도 가지가지

'실속파족' '애걸복걸족' '눈팅족' (댓글을 달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네티즌) 등이 종횡무진하고 있다. '무한폭격기족'은 뉴스서비스와 개인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댓글을 무차별로 쏟아붓는 네티즌들이다. 이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로 시작하는 '사회비판형 댓글'과 '뽕삽(포도삽) 제대로 했네요' 등 '애걸형 댓글' 등을 남기고 있다. 어떤 이슈가 터진 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측들은 대개 '핫소문족'에 의해 만들어진다. 특히 인기스타 등 연예인과 관련한 내용에서 위력을 더하며 '카더라 뉴

스'의 주범이다. 정보 획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속파족'들이 가장 많이 활약하는 곳은 각종 포털사이트가 개설한 '지식검색 서비스'다. 하루 평균 약 400만명이 지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백과사전 267권의 분량에 해당하는 4천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댓글족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악플'(악성댓글)이 아닌 '무플'(응답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걸복걸족'은 '댓글 다는 본인 복 받으실 거예요' 등 온갖 애교로 '무플' 탈출을 꾀하며, '눈팅족'을 철저히 경멸한다. 한편 취업 포털사이트 '커리어'(www.career.co.kr)가 최근 대학생 1천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1%가 인터넷 기사나 글 등에 댓글을 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달기 위해 참여하는 공간은 ▲포털사이트(50.3%) ▲카페(25.9%) ▲개인 홈페이지(19.7%) ▲신문사 홈페이지(4.1%)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댓글은 연예인(30.3%)이었고, 사회(24.4%)·취업(17.6%)·정치(12.3%)가 뒤를 이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시의원 해외연수시간 95% '관광'

'여행목적부합비율' 전국 광역단체중 최하위

광주시 광역의회 의원들이 타지역 의원들에 비해 시민들의 혈세로 나간 공무원여행(이하 국외여행)을 가장 허송세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홍사단 투병사회운동본부'가 3일 발행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여행 백서'에 따르면 광주시의원 19명은 임기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8번의 국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억4천528만4천원 37개국을 방문했고, 한 번 해외로 나갈 때마다 평균 8일을 체류했다. 하지만 여행기간(2004~2005년/282시간) 동안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16시간(5.7%)에 그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외여행을 가장 목적에 맞게 보낸

광역단체는 경남(24.2%)이었으며, 전남(14.5%)은 6위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여행목적 부합비율은 13.3%였다. 보성군 의원들은 288시간의 여행모두를 지방행정과 상관이 없는 박물관 견학이나 관광으로 보냈다. 무안군 역시 104시간의 여행 중 5시간(4.8%)만이 실무와 관련 있었으며, 담양군(7.4%)과 고흥군(8.6%) 등의 의원들도 대부분 관광성 위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광역·기초 의원들이 국외여행 중 100% 관광성 위유를 한 경우는 6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원들은 임기 중 34회에 걸쳐 45개국을 방문, 4억4천965만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의원들은 115회 동안 251개국으로 여행을 했으며,

광주·전남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여행실태 (단위:천원,%)

광역의회	1인당 여행도	총사유액	1인당 사용액	총방문국 수	총방문일 수	여행목적 부합비율
서울	1.6	477,000	4,676	17	179	10.6
부산	2.3	309,139	7,026	14	121	18.0
대구	1.6	120,264	4,454	8	79	16.2
광주	3.8	145,284	7,647	28	216	5.7
대전	2.4	156,225	8,222	13	89	14.0
전남	0.9	304,372	5,968	6	61	14.5

광주시 기초의원

광역의회	1인당 여행도	총사유액	1인당 사용액	총방문국 수	총방문일 수	여행목적 부합비율
동	1.5	41,747	3,211	3	28	12.5
남	3.7	81,813	5,113	12	64	15.5

전남도 기초의원

광역의회	1인당 여행도	총사유액	1인당 사용액	총방문국 수	총방문일 수	여행목적 부합비율
담양	2.8	49,800	4,150	3	24	7.4
고흥	2.5	75,156	4,697	5	34	8.6
보성	1.0	55,796	4,650	4	46	0.0
화순	1.6	74,940	5,353	5	57	8.7
영암	2.8	83,835	7,621	4	34	10.7
무안	1.6	35,845	3,983	4	33	4.8

경비는 15억2천416만8천원이 들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반팔로 갈아 입으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음.

5월 4일 (음 4월 7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11~27
부산	맑음	11~23
대구	맑음	11~19
대전	맑음	9~23
전주	맑음	11~27
충주	맑음	8~24
청주	맑음	8~25
영주	맑음	7~22
포항	맑음	8~28
울산	맑음	9~23
경주	맑음	9~24
안동	맑음	10~27
의령	맑음	7~28
진주	맑음	10~27
통영	맑음	7~28
거제	맑음	10~2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6:43 썰물 < 12:31
목포 밀물 < 18:23 썰물 < 23:56
여수 밀물 < 01:16 썰물 < 07:44
13:05 썰물 < 19:39

▲해돋이 05:39 ▲해질 19:20 ▲달출 01:0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최저/최고	14/25	15/20	15/22	13/27	13/28	14/28

휴대전화 이용자 11% "두통 등 신체이상 증세 경험"

10명중 9명 "전자파 유해"

휴대전화 사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 우리당 서해석 의원(정통위)은 최근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3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전자파 유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 37.5%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55.5%는 '영향이 있겠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93%가 유해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신체 이상 증상을 묻는 질문에 10.9%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상증상으로는 '귀가 일시적으로 멍한 느낌'을 가장 많이

겪었으며 두통·피로감·정신 집중력 약화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파 흡수율(SAR)에 대해서는 7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있다'는 비율은 23.5%에 그쳤다. 단말기 구입시 SAR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4.1%로 '고려한다'(15.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자파를 막기 위한 자구행동은 ▲유선전화를 이용한다(23.6%) ▲통화는 짧게 하며 문자메시지로 대체한다(15.2%) ▲이러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한다(11.1%) 등 순이었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AR(Specific Absorption Rate)=휴대전화로 통화를 할때 단위 시간동안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 단위는 w/Kg로 노출한계치는 1.6w/Kg이다. 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시열병원원 단체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폭탄주는 역시 소주+맥주

혼합주 선호도 조사 38%로 압도적 1위

가장 즐겨 마시는 혼합주는 '소주+맥주'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지난달 17~30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보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즐겨 마시는 혼합주는?'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소주+맥주'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복분자주+소주'와 '소주+녹차'가 각각 20%, 1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위스키+맥주', '소주+양주', '복분자주+맥주'가 각

각 10%, 6%, 4%로 4~5·6위를 차지했다. '소주+맥주' 혼합주를 가장 즐겨 마시는 이유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따로따로 마실 때보다 색다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aacom72 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자리에서 자주 마셔 가장 친숙한 혼합주'(haha2426 외)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보해 홈페이지(www.bohae.co.kr)를 통해 2주간 조사됐으며, 설문조사에는 총 341명이 참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월드컵 승리 기원...꼭짓점 댄스 KBS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가자! 독일로, 오 필승 코리아! 2006 응원 페스티벌'이 3일 오후 3시 방송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꼭짓점 댄스 공연대회·축하공연 등으로 열기를 더했으며 수백명의 시민이 참여, 월드컵 응원가를 배우고 따라부르는 등 성황을 이뤘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내일 어린이 날...다채로운 행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문화예술공연·스포츠 무료관람·소방 및 교통 체험 행사가 '제 84회 어린이날'을 맞아 잇따라 개최된다. 광주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열주 종합체육관 일원에서 보육시설 아동과 학부모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싹들의 큰 잔치'를 마련한다. 이날 잔치에는 풍물대 공연·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지방노동청은 4일 오전 동구 금남로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갖고 미래를 위한 직업 여행·직업정보 카드찾기·직업법 명교예인 등 직업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어린이 날'인 5일 어린이교통공원·금남로 4가 지하철역·상무시민공원 등에서

안전체험 캠프를 연다. 광주시립 미술관은 이날 오전 '신나는 에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각 구청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도 전시·공연·영화 상영 등을 갖는다. 또 ▲KIA타이거즈-한화 이글스 프로야구 경기(낮 12시·무등경기장) ▲광주상무-대전시티즌 프로축구 경기(오후 3시·월드컵 경기장) 등이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되며, 선물 증정·팬 사인회 등 이벤트가 마련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망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제

(주)태양주력개발 TEL:062) 262-8606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임도/양수

青碩 C&S TEL:0512-0347-0 FAX:0512-1097

어바인드 효도상품은... 전립선 J2V

태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압력을 1위

매월초 사후 행정고시학원 ☎361-8111